

2022년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 포럼

현장 사례를 말하다

자료집

2022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 포럼

「현장 사례를 말하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 포럼 「현장 사례를 말하다」
-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13:30~16:00
- 장 소 : 완주군청 대회의실
- 참석 대상 : 아동, 청소년 기관 종사자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완주군청

세부일정

시 간	소요 (분)	세부 행사내용
13:30 ~ 14:00	30'	• 접수
14:00 ~ 14:05	5'	• 내빈소개 사회 송미경 팀장 (아동청소년친화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 완주군수/ 군의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청소년창의혁신연구실장
14:10 ~ 14:30	20'	• 기조발표 양병찬 교수 (공주대학교) 왜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요한가?
14:30 ~ 14:45	15'	• 발제 1 김웅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 전환 및 과제
14:45 ~ 15:00	15'	• 발제 2 장종택 교장 (고산고등학교) 완주군 지역공동체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사례 및 발전방향
15:00 ~ 15:15	15'	• 발제 3 임진희 센터장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과 학교 살리기 사례
15:15 ~ 15:25	10'	휴식 및 자리정돈
15:25 ~ 16:00	35'	• 토론 좌장 최인재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근석 공동대표 (고산향교육공동체) 김주영 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유지숙 과장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최정선 관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16:00~		마무리 및 폐회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시간 및 연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차

• 기조발표	5
왜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요한가? 양병찬 교수 (공주대학교)	
• 발제 1	29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 전환 및 과제 김웅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 발제 2	39
완주군 지역공동체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사례 및 발전방향 장종택 교장 (고산고등학교)	
• 발제 3	49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과 학교 살리기 사례 임진희 센터장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전라북도농촌유학센터협의회장)	
• 토론문	55
이근석 공동대표 (고산향교육공동체) 김주영 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유지숙 과장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최정선 관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기조발표

왜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요한가?

양병찬 교수
(공주대학교)

지역 소멸에 대항하는 청소년들의 지역교육생태계

- ‘지역소멸’에의 주민들의 교육적 응전-

공주대 양병찬
bcyang@kongju.ac.kr

1. 지역과 교육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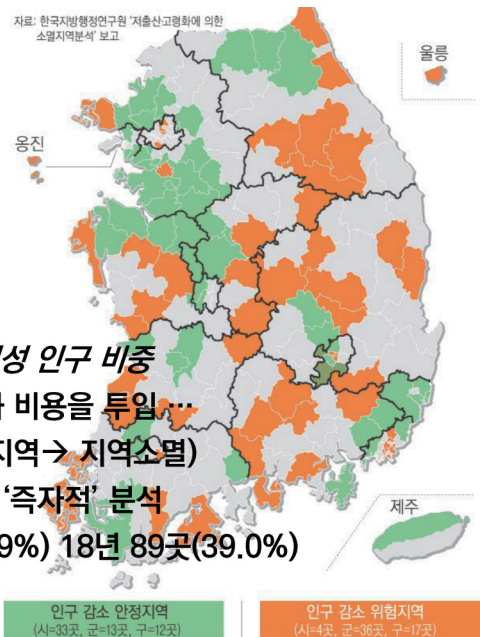
1-1 지방 소멸의 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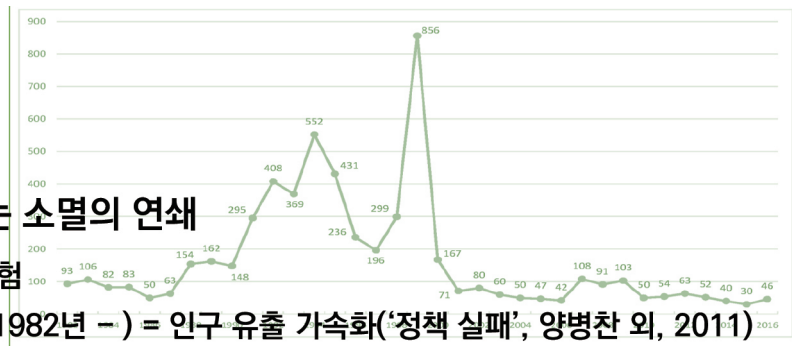
• 마스다의 ‘지방소멸’론

- 소멸위험지역 = 65세 이상 노인인구 > 20-39세 여성 인구 비중
- 일본發 ‘소멸’론 = “이미 한계에 달한 마을에 노력과 비용을 투입... 투입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한계지역→ 지역소멸)
- 대책 : ‘인구댐 만들자.’=지역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즉자적’ 분석
-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상호) ’ 13년 75곳(32.9%) 18년 89곳(39.0%)

• ‘지방소멸’론의 평가(정성호, 2019)

- 지방소멸론의 효과 :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국가 차원과 해당 지자체) 환기
- “인구의 수만 가지고 지방소멸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지방소멸 위기 의식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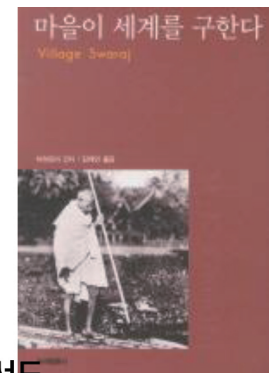


1-2 교육으로 이어지는 소멸의 연쇄

- 학교 통폐합 : ‘실패’의 경험
 -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1982년 -) = 인구 유출 가속화(‘정책 실패’, 양병찬 외, 2011)
 - 현재 귀촌/귀농의 걸림돌(조건으로서 교육여건 : 학교의 조건 정비)
 - 출생아 수가 아니라 교육여건 중심으로 ‘지방소생’ 대책 강구되어야(채창균, 양병찬 외, 2019)
- 지방대학의 위기
 - “지방에 있는 대학이 무너지면 지방도 소멸할 것”(연합뉴스, 21. 5.21)
 - “지방대가 배출한 인재와 생산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는 한 지방대 위기는 극복되기 어려울 것”(대학교육연구소, 2020)
- 압축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 현상 발생 → 전통적 공동체 생활 붕괴
 - 지역소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지역공동체 해체 심각 → 교육 문제 야기

1-3 문제 제기

- 소멸의 악순환
 - 인구 유출 → 학생 수 감소 → 소규모 학교 통폐합/지역대학의 위기 → 지역 경쟁력 약화 → 지역 소멸(론) ...
 - “도시는 마을을 착취했다”는 20세기 간디의 통찰(1962)은 오늘 한국에서도
 - 원인 : 산업화기에 먹고 살기 위한 이농향도로 ‘인구의 공동화’ → ‘마음의 과소화’로
- 자치적 공동체로서의 마을(Swaraj)을 전제로서 관점의 전환이 필요
 - 지역의 활력 정책의 관점 : ‘재생’ vs. ‘재편’ vs. ‘소멸’
 - 소멸의 관점을 다시 소생/재생/회복(RE-vitality)의 관점으로 전환
 - ‘마음의 과소화’의 문제, 주민 생각의 전환을 위해 교육을 통한 재생의 가능성이 있을까?
 - 학교와 대학, 지역이 협력적 교육공동체로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자 함



오늘날의 <지역개발>과 <지역교육>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

2. 교육문제에 대한 공동의 자각

2-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여건개선 프로젝트

/ '교육여건 개선 정책' 추진

- 일부 지방정부들이 지역 인구의 급감 원인이 지역 학교의 경쟁력 약화로 진단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지역 교육재단 설립 등 지역 학교 지원 정책 추진 중 (전북 순창-기숙형 공립학원, 곡성군-중심학교 집중 지원, 나주시-나주교육진흥재단 설립 등)

/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액: 2조 1,135억원(학생 1인당 약 35만원)

- 교육 투자액 비율: 전국 평균 0.90%(시지역 0.88% < 도지역 0.91%)
- 기초자치단체의 교육투자도 증가 추세

/ 교육경비지원조례 제정 현황

- 2006~2007년에 주로 집중적으로 제정
- 인구 감소나 재정이 열악한 군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먼저 이러한 규정을 제정, 재정 규모에 비해서 더 많이 지원 → 교육을 통한 지역 재생 기대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개별학교 직접 지원, 시설 설비 투자 등 자원 배분 방식이나 사용 방식 등에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과의 갈등 일부 심화, 종합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는 문제 발생

2-2. 지역재생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 지역의 교육력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 개발 시대

- 지역사회개발에의 강조는 물적인 변화 자체보다는 주민들의 교육에 두어야 함 (Nelson & Vermer, 1960)
- 사회적 자본의 논리도 공동체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주민 주체 형성 정책 노선(World Bank)
- 지역마다 고유의 교육력 존재

/ 지역적 요구와 도전에 대한 지역적 해법

- 호주의 Mt. Evelyn 학습도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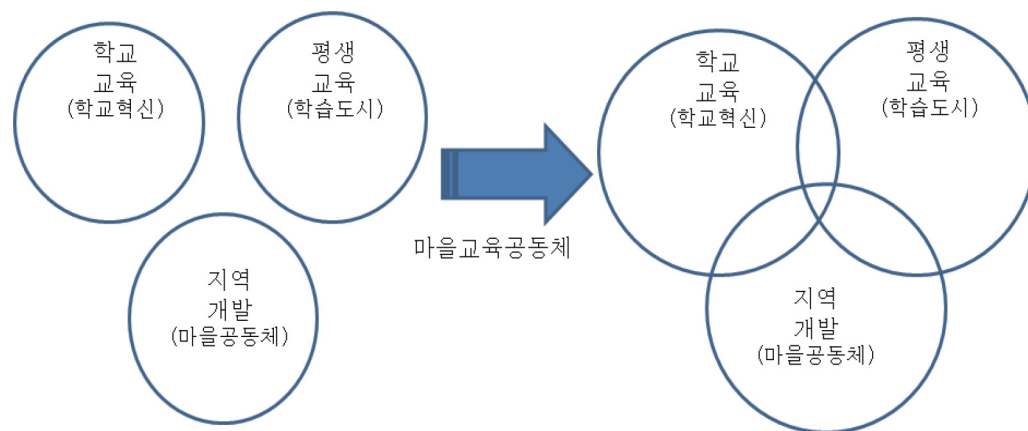


2-3.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관련 정책

/ 지역평생학습정책 : 평생학습도시 사업(2001-)

/ 교육혁신정책 : 혁신교육지구 사업(2010년-)

/ 지역개발 : 마을공동체 사업(2012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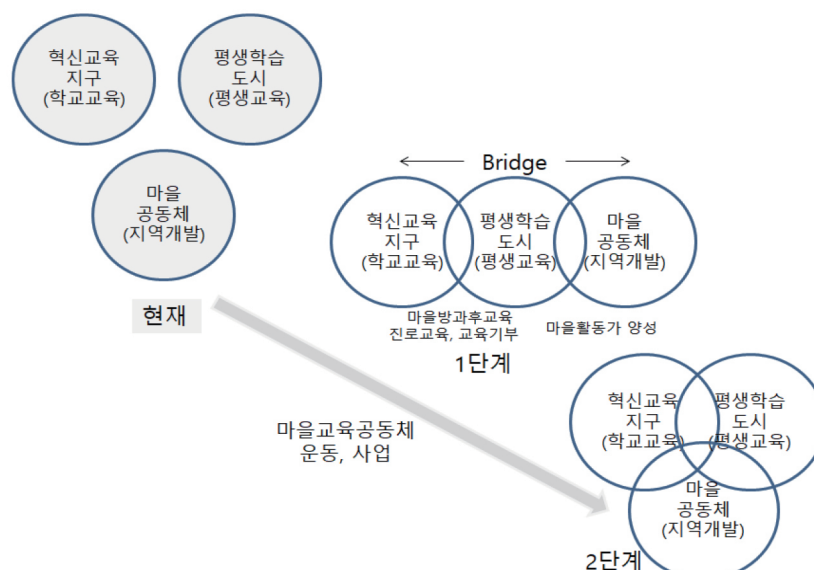


2-4. 지역 공동체 사업들 간의 연계화

/ 사회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필요 :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연계, 마을공동체사업의 제후

/ 지역의 학생 지원 교육 사업들 간의 통합(교육복지적 차원)

/ 생활권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3. 혁신교육지구X마을교육공동체 전국 현황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관점 진화

1. 지역 자원동원을 통한 **학교 보완론**_ 학교 발 발
 - 오늘날 지역이 학교보다 더 다양한 교육 '경험' 자원 제공 상황
 - 학교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자 (학교 쪽의 에너지)
 - 학교의 집(학교의 행정 부담 높아지는 모습)
2. 중앙부처 지원 정책에서 지역 **자원의 재편_교육네트워크론**
 - 중앙부처 지원 정책들의 파편화(칸막이 사업화) 문제
 - 지역의 다양한 부처의 사업들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
 - 유사 사업들의 지원체제 재구조화: 사업 통합과 단순화
3. 지역 교육의 주체 형성을 통한 **조직화론_주체형성론**
 - 주민자치적 마을교육공동체(시흥시, 순천시, 구로구 모델)
 - 기존의 학부모 운동과는 차별화되는 지역 주민들의 시민적 역량 육성
 - 지역 교육 과제를 중심으로 각성된 주민들의 조직화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서초 마을학교 발전자문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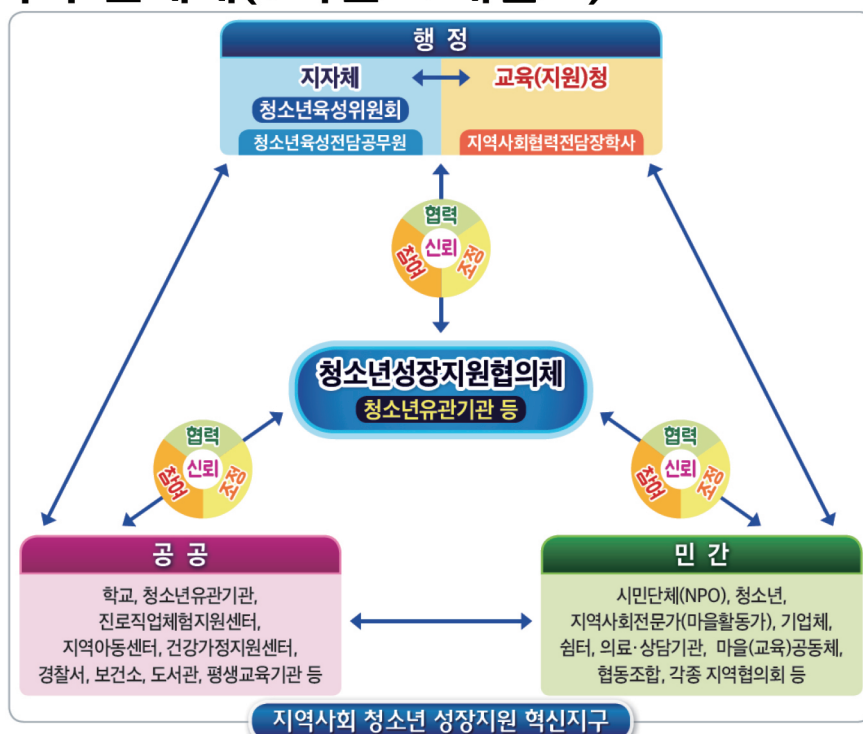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속의 마을, 마을속의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회와 연계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 정책 추진체계(1차년도 개념도)



최인재외(2019).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성장지원 정책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

비전 : 지역과 청소년이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미래사회 구현

정책목표

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환경 조성
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추진 기반 마련
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참여 주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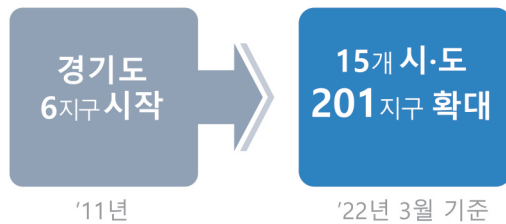
세부추진과제

1 법·제도 제·개정을 통한 정책추진 기반 조성	1-1. 지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1-2. 지자체 조례 내 협의체 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 명시 및 평가체계 개편 1-3. 지자체, 교육청,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주관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2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협의체 설립 및 운영체계 마련	2-1.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범위 설정 2-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설립 및 운영 주체 선정 2-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4.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운영 방식 및 역할 마련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자원 발굴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3-1. 지역의 인프라 환경과 특성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축 3-2.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만남과 소통을 통한 신뢰성 제고 3-3.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 지자체, 교육청 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협의체 지원체계 강화	4-1. 지자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 4-2.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협의체에 의사결정권 및 권한 부여 4-3. 지역사회 청소년성장지원 네트워크 전문 인력 양성

전국 혁신교육지구 현황



혁신교육지구의 현 주소



국정과제(50-4-1) 혁신학교(지구)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현 상황 최근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으로 인해 교육(지원)청-지자체-학교의 협력체제 구축은 시대적 과제가 되어, 민관학 협력 필요 요구 증대

시도	혁신교육지구 명칭	운영 개수	시작년도
서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5지구(25구군)	2014
부산	다행복교육지구	11지구(16구)	2018
대구	대구미래교육지구	8지구(8구군)	2020
인천	교육혁신지구	7지구(10구군)	2015
광주	마을교육공동체	5지구(5구군)	2015
대전	행복이음혁신교육지구	5지구(5구군)	2018
울산	서로나눔교육지구	5지구(5구군)	2019
세종	행복교육지구	1지구(1구군)	2018
경기	혁신교육지구	31지구(31구군)	2011(시초)
강원	행복교육지구	18지구(18구군)	2015
충북	행복교육지구	11지구(11구군)	2017
충남	행복교육지구	15지구(15구군)	2017
전북	전북교육협력지구	14지구(14구군)	2015
전남	혁신교육지구	22지구(22구군)	2012
경북	미래교육지구	5지구(23구군)	2020
경남	행복교육지구	18지구(18구군)	2016

일반자치-교육자치 협력을 통해 실천기반 협력모델 창출해옴

혁신교육자구의 <교육부 버전>: 미래형 교육자치지구 사업

〈'20-'22년 미래교육지구 지정 현황: 33개 지구〉



교육부 정책 의도: 혁신교육지구 중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도 모델 개발
지역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한 지역 교육 그랜드 비전 수립

교육부 제안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위한 구조

교육협력센터 구축 지원

교육(지원청) - 지자체 교육협력센터 설치
※ 교육협력센터를 통해 통합적 관리·지원 (허브 역할)



지역교육 의사결정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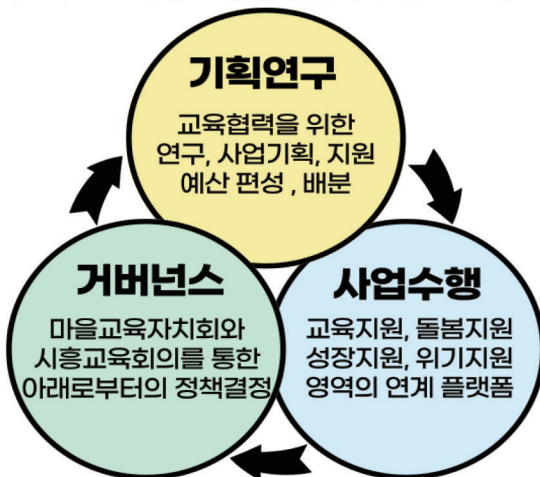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분과 설치,
민관학 참여 마을교육자치회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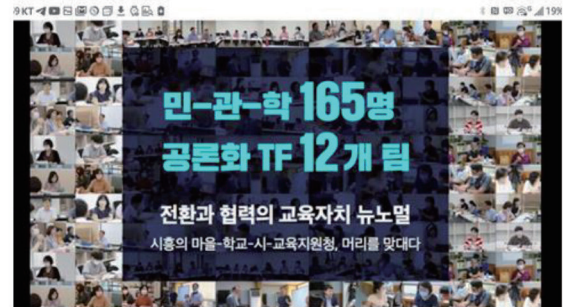
4.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실천 : 3도시 이야기

4-1. 경기도 시흥시 : 교육자치도시로서의 협력 거버넌스

교육지원 → 교육의제 → 교육회의 → 교육자치
(교육현안에서 교육정책 설계와 실천으로)



시흥 교육자치 공론화 TF 12개팀
<https://www.youtube.com/watch?v=bfz1brOdkUA&feature=youtu.be>



학년별 마을교육과정(교실수업+현장학습)

시흥의 사계 봄·여름·가을·겨울	다양한 활동과 함께 시흥과 자연의 사계를 관찰하며 자연환경을 감상하고 소중함을 몸소 체득하는 프로그램	초등2
평화공동체	자신을 존중하고 공감과 소통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평화공동체 프로그램 (재료비 소규모 지원)	초등4
쌀의 여행	쌀의 연대기를 통해 생태와 먹거리 이해 프로그램	초등5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2019 초·중·고 SW 교육 필수화'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를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	초등6
시흥의 미래 체인지메이커 마을을 바꾸는 마을플래너 하비프러너를 꿈꾸며 한옥이 미래다	교과 간 융합 수업 진행으로 시흥의 과거-현재 모습을 통해 살고 싶은 미래의 모습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대비 중3 맞춤형 진로교육과정 운영	중1~3
진로 job고! 고교학점제 가자!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기술	기존의 학년별 마을교육과정 초등 대상 프로그램을 중·고등 교육과정에 맞춘 심화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자율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 교과연계 심화 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고1~3

2015 시청 운영 부서	운영내용	지역사회 연계	운영 주체	
			공공(부서)	민간(마을)
			12	7
시민소통담당관	「내꿈발전소시흥시청」 「만평에그린」	학부모강사	○	
경제정책과	「늘내길 역사문화탐방」 「시흥 갯골 탐방」	역사지도사 시민강사	○	
녹색폐기물산업과	「오이도 생생발굴조사 체험」 「시흥 오토아카데미」 「학생승마체험」		○	
문화관광과	「능곡선사 문화체험」 「방산동 기마터 아트스쿨」 「우리고장시흥 문화관광탐방」	초등학교 마을강사	○	
환경정책과	「초록배움터(갯골, 소래산)」	마을강사 협동조합	○	
상수도과	「청소년 물사랑 체험마당」		○	
공원관리과	「숲체험(옥구공원)」	마을강사 협동조합	○	
안전총괄과	「안전체험학교」	지역방재단	○	
진로도서관	「자기탐험 프로그램」		○	
생명농업기술센터	「아란이 도시농업」 「천문관」	지역 농가 10개소	○	
의회사무국	「청소년 모의 의회」	학부모강사	○	
사회조력관리단	「조력 에너지」		○	
문화자연체험학교	「연꽃테마파크 생태교실」 「늘내길 역사문화탐방」	마을강사		○
상상끼리	「마을문화 공공디자인」	장현동 마을학교		○
이음교육	「이음 다문화체험관」	사회적기업		○
가족여성과	「성교육체험관 “위아?”」			○
평생학습과	「참이슬 마을공동체 여행」 「능곡동 마을여행」	마을학교 마을학교		○ ○
급식지원센터	「쌀의 여행 추수체험」 운영	지역 농가 6개소		○

2015 시청 운영 부서	운영내용	지역사회 연계	운영 주체	
			공공(부서)	민간(마을)
			12	7
시민소통담당관	「내꿈발전소시흥시청」 「만평에그린」	학부모강사	○	
경제정책과	「늘내길 역사문화탐방」 「시흥 갯골 탐방」	역사지도사 시민강사	○	
녹색폐기물산업과	「오이도 생생발굴조사 체험」 「시흥 오토아카데미」 「학생승마체험」		○	
문화관광과	「능곡선사 문화체험」 「방산동 기마터 아트스쿨」 「우리고장시흥 문화관광탐방」	초등학교 마을강사	○	
환경정책과	「초록배움터(갯골, 소래산)」	마을강사 협동조합	○	
상수도과	「청소년 물사랑 체험마당」		○	
공원관리과	「숲체험(옥구공원)」	마을강사 협동조합	○	
안전총괄과	「안전체험학교」	지역방재단	○	
진로도서관	「자기탐험 프로그램」		○	
생명농업기술센터	「아란이 도시농업」 「천문관」	지역 농가 10개소	○	
의회사무국	「청소년 모의 의회」	학부모강사	○	
사회조력관리단	「조력 에너지」		○	
문화자연체험학교	「연꽃테마파크 생태교실」 「늘내길 역사문화탐방」	마을강사		○
상상끼리	「마을문화 공공디자인」	장현동 마을학교		○
이음교육	「이음 다문화체험관」	사회적기업		○
가족여성과	「성교육체험관 “위아?”」			○
평생학습과	「참이슬 마을공동체 여행」 「능곡동 마을여행」	마을학교 마을학교		○ ○
급식지원센터	「쌀의 여행 추수체험」 운영	지역 농가 6개소		○

지역사회와 손잡은 현장학습

- 2015 이전 ▶ 93학급
- 2015 ▶ 544학급
- 2016 ▶ 1109학급
- 2019 ▶ 2,100학급

학교교사, 마을교사, 그리고 동네언니 _ 중부권 167명



시흥혁신교육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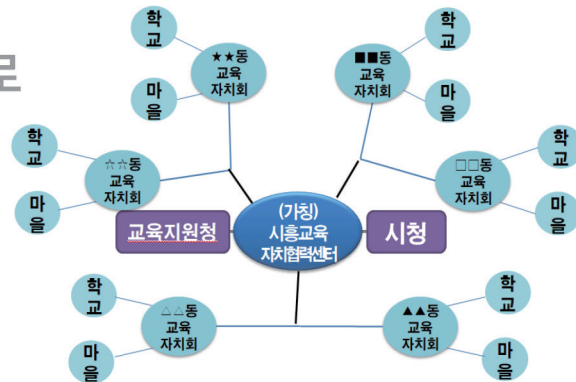
- 지역교육 현안 공론화 TFT로 시작
- 혁신교육지구/기후환경/교육과정/교육행정혁신/돌봄협력/마을교육연구/마을교육자치/미래교육공간/위기진단교육복지/진로직업, 대학/학교예술교육/학교 혁신/학부모자치/학생자치(14개 분과)
- 2021년 100번이상의 만남과 협의



시흥마을교육자치회

- 의사결정 구조가 더 생활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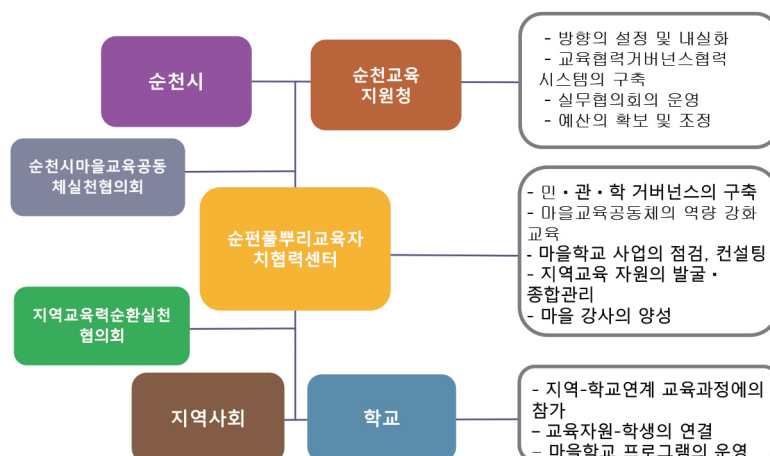
동洞으로 더 작게 가깝게,
학교와 마을 거리 좁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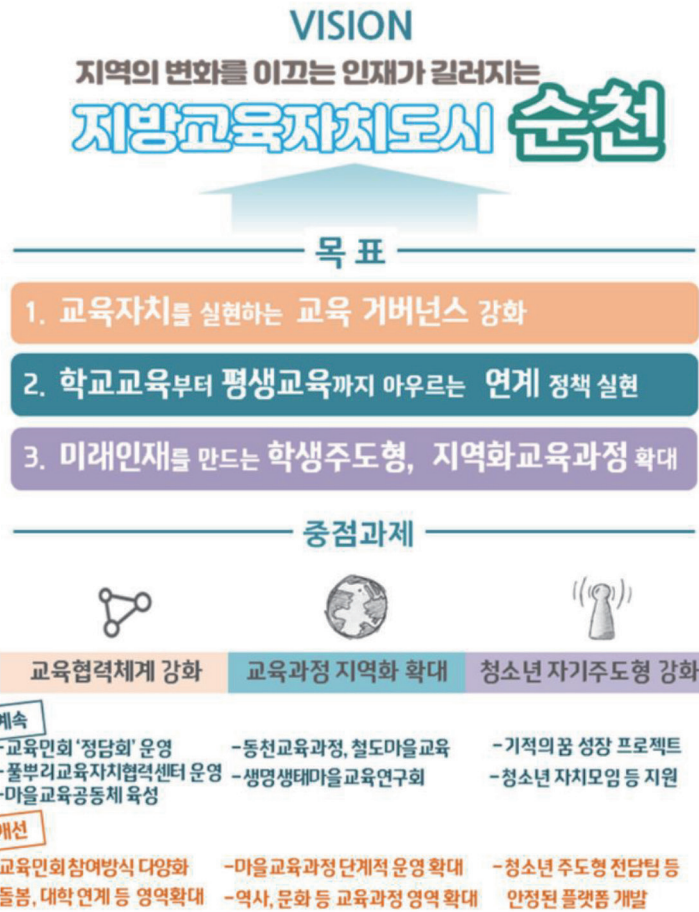
4.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실천 : 3도시 이야기

4-2. 전라남도 순천시 : 교육민회를 통한 주민의 교육 협력 거버넌스

- '전통(학력중심)의 교육도시 순천'의 새로운 전환
- 평생학습도시와 연결된 혁신교육지구 사업
- 정담회(교육민회)
- 순천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중간지원조직)



순천 지방교육 자치도시



교육민회 '정담회' 의 구성

- 지역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구축
- 매달 1회, 일정한 시간에, 장소에서(코로나 시기 줌회의로)
이후 조례에 '교육민회'라는 용어로 제도화
- 열린 공론장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지원청 장학사, 시의원, 교사, 마을교육활동가들이 '시민'의 정체성으로 한 자리에 모임(현재 42회).
- 논의의 확장 : 초기 '학교 교육' 한정 → 최근 '지역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 계기 마련됨.
- 교육 의제를 더 이상 '민원의 형태'로 문제 제기하는 방식을 넘어서 참여하여 발언하고 책임지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
→ 교육을 고민하는 건강한 시민 만들기



**지역교육력회복실천공동체
정담회**

구성일 : 2018. 10. 23
참 여 : 시민 누구나
(지역활동가, 교사, 학부모 등 260명)

활 동 : 매월 1회 정담회 개최
지역 교육 의제 논의

도시단위 교육민회
교육적 연계 주제 확장과정

36차 2022. 01 | 지역교육력회복을 위해 우리, 내가 하고 싶은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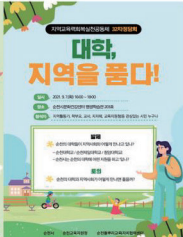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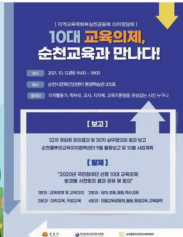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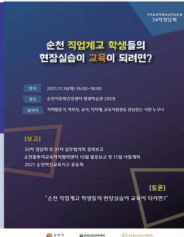
37차 2022. 02 | 기후위기 시대 마을교육공동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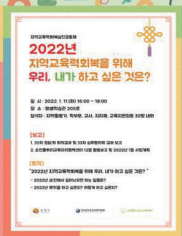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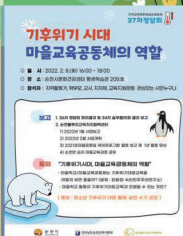
38차 2022. 03 | **마을교육과 주민자치**의 만남

39차 2022. 04 | 우리가 꿈꾸는 학습도시의 모습은?(**통합적 관점에서 보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평생학습**)

40차 2022. 05 | 순천이 회복적 도시가 되려면?

41차 2022. 06 | 순천형 **전학학교**에 대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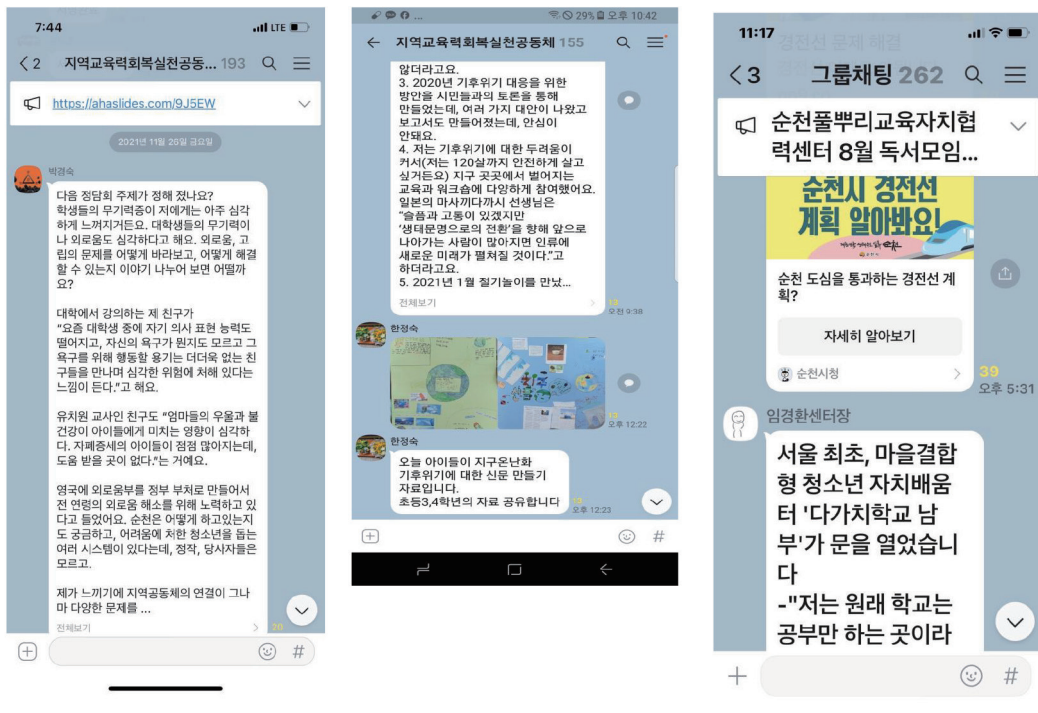








단톡방(SNS) 방식의 열린 소통

- 교육 관련 공적 논의들이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단톡방(SNS) 방식의 열린 소통

- 교육 관련 공적 논의들이 일상의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보조금 논의 과정

- 교육경비개선사업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 자료 공개
- 교육지원청, 교사들, 시청, 풀뿌리마을학교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4차례 논의 → 방향 모색을 위한 포럼 개최
- "소수의 아이들이 아니라 다수의 아이들이 혜택받는" 방향 결정
- 국제화교육특구 해지 논의도
-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개정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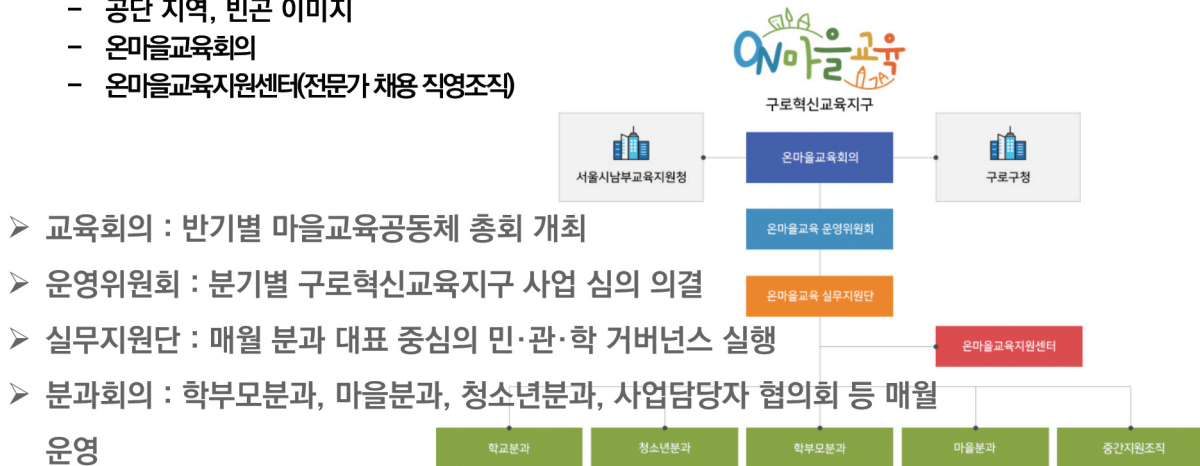
교육 경비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다	
2019. 09.20(금), 15:00-18:00 순천시청 대회의실	
시간	내 용
14:30 - 15:00	참여자 등록
15:00 - 15:10	<인사말> 순천시청(박지현, 순천시의회 회장(사정산),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길호))
15:10 - 15:15	<기초발제> 교육경비 지원 정책 개선방향 김옥준 / 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15:15 - 16:00	<사례발표> 시흥시 교육경비 운영 김윤진 / 시흥시 교육정책연구실 행정지원팀장
16:00 - 16:05	휴식
16:05 - 16:10	<포럼 취지 설명> -무용유 / 순천시청 무용과장
16:10 - 16:15	<보조 발제> 순천시 교육경비 현황 및 개선 방향 김옥준 / 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16:15 - 16:20	순천시 교육경비 사용에 대한 교육현장의 소리 이영민 / 순천시자주학교 교사
16:20 - 16:25	교육환경개선사업 Ver 2.0 시대를 제안하다 강성운 / 병정초등학교 교장
16:25 - 16:30	순천시 교육경비 지원 정책에 관한 제언 이영민 / 순천시의회 의원
16:30 - 16:35	지역교육력 회복의 관점에서 본 교육경비 지원의 방향 임경환 /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장
17:00 - 18:00	폐널 회의 및 참여자 의견 수렴
18:00	폐회

주최: 순천시 | 후원: 순천시청, 순천교육지원청 / 순천풀뿌리교육자치지원센터

4.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실천 : 3도시 이야기

4-3. 서울시 구로구 : 교육민회를 통한 주민의 교육 협력 거버넌스

- '가기 싫은 학교, 살기 싫은 지역' 에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구로'로
- 공단 지역, 빈곤 이미지
- 온마을교육회의
- 온마을교육지원센터(전문가 채용 직영조직)



- 교육회의 : 반기별 마을교육공동체 총회 개최
- 운영위원회 : 분기별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 심의 의결
- 실무지원단 : 매월 분과 대표 중심의 민·관·학 거버넌스 실행
- 분과회의 : 학부모분과, 마을분과, 청소년분과, 사업담당자 협의회 등 매월 운영

역할

온마을교육회의	온마을교육운영위원회	온마을교육실무지원단	분과 및 지원조직	온마을교육지원센터
마을교육공동체 총회	사업 정책방향 제시 및 조정·심의	분과 대표 중심의 민관학거버넌스 실행체계	마을교육공동체 참여자 중심의 논의기구	사업 집행·실무체계

어린이·청소년, 마을, 교사, 학부모까지! 혁신교육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도의 알찬 교육열매를 맺기 위한 첫걸음, **함께 하시기 않을까요?**

2019.4.5 15:00
금요일 구경 강당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문의 860-2138-40

온마을교육회의

구로구 온마을교육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 환경보호를 위해 음료리ไซ클링을 부탁드립니다.

행사 주요 내용

- 구로혁신교육에 바란다 - 교육주체 발언대
-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 안내
- 2019 구로혁신교육지구 비전 선포 및 협약식

주제별 사전 모임

- 학부모회 연수 및 사업설명회 13:00-15:00
- 교사대상 혁신교육사업 설명회 14:00-15:00
- 교장대상 교육사업 설명회 15:30-16:00



코로나 19와 마을학교



학교가 모두 문을 닫았을 때
마을학교는 아이들을 만났다.

비접촉식체온계, 공간소독제, 손소독제, 손세정제,
상비용마스크, 소독용물티슈 등

초등원격학습지원 마을학교 8개소를 비롯하여
혁신교육사업 참여기관에 방역꾸러미 지원 시작!



원격학습지원 마을학교 운영 (7.7~8.14)



청소년 자치(청소년 연합조직 : 학교 + 학교밖)

2022

구로혁신교육지구 구로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래**



구로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래를 소개합니다

'그린나래'는 '그런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의 순우리말입니다. 공식명칭은 구로청소년자치연합 그린나래 입니다.
구로의 청소년들이 자치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아름다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청소년자치연합조직입니다.

구로 청소년 연합 활동을 통한 학교 자치 활동 역량 강화

- 학생회 권역별 네트워크 모임
- 청소년 공론장
- 청소년 투표
- 총투표 안건 접수(청소년들 정책 제안서 구청장후보들과 정책
간담회 진행)



완주-고산교육에 대한 기억과 경험

• [기억 : 놀라움과 기대]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모임에서 만난 삼우초 가는 교사들
- <고산향교육공동체>의 종합계획과 주민 주도
-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참여실천연구
- 고산고
- 청소년센터 '고래'



• [경험 : 우려]

- <완주군청>과 <교육지원청> 사업의 지속가능성?
: 속도 & 주체성
- 로컬에듀인가? 로컬 스쿨인가?
- 내실이 중요 : 핵심은 주민의 주체적 참여



5. 지역소멸에 대항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전략

5-1.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의 '고리'로서 지역 교육

가. 지역공동체 학습의 선순환 구조

/ 21세기를 여는 열쇠 개념으로서 평생학습 : 유네스코 보고서(UNESCO, 1996)

- '앓을 위한', '행동을 위한', '존재를 위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 평생학습의 네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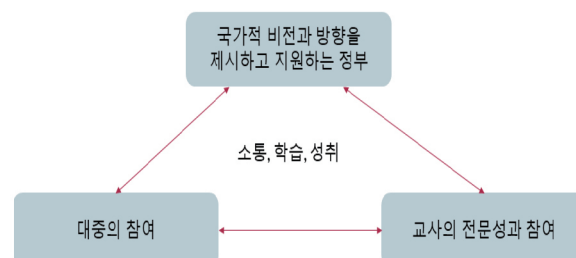
/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에 주목 : 지역공동체 학습

/ 주민 함께 모여 지역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해법을 찾는 실천

나. 교육 분야의 지역사회 조직화

/ 하그리브스와 설리(2015) <학교 제4의 길>에서 오바마의 지역사회조직화운동과 같이 교육 분야의 지역사회

조직화 제안 → 학부모 운동과 차별화 되는 시민적 역량을 키우는



5-2. 지역공동체교육의 방향과 과제

가. 마을교육공동체를 위한 교육청과 지방 정부와의 거버넌스 구축

- /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 연계 지원 조례> 제정
- / 교육 자치에 대한 재검토 :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 자치구상
- / 지역교육회의: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학 협치 체제 운영

나. 지역과 학교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사업 통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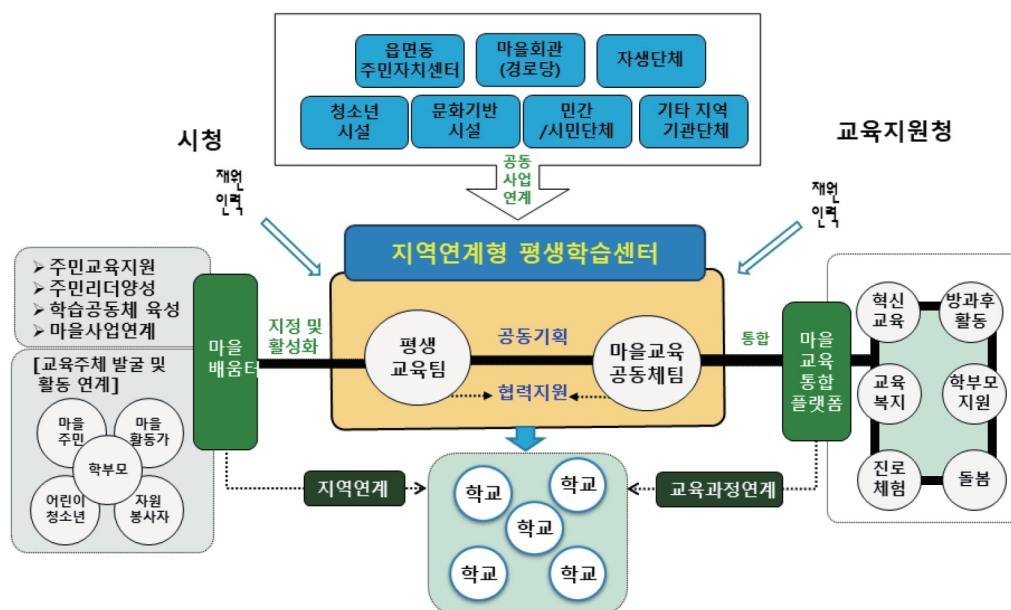
- / 중앙부처의 아동, 청소년 생활 및 교육 자원 정책의 재편
- / 지역사회교육센터(가칭) 설치: 시군 교육지원 사업의 통합센터 운영

다. 지역 격차 극복을 위한 농촌 교육지원 사업

- / 농어촌학교 활성화 조례 제정
- / 작은 학교 육성 정책 추진
- / 농어촌 방과후교육 사업의 공적 지원
- / 농어촌 주민의 저학력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완교육 운영

라. 지역공동체 교육의 기반으로 평생학습체제 강화

- / 시군 단위 평생학습관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연계
- / 읍면동 단위의 주민 공공 교육공간(평생학습센터)의 구축



6. 함께 만드는 지역교육공동체의 창조

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확산에 대한 문제 제기

- =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 지원을 핵심 과제로
- “한아이를 온 마을이 키우는” 지역사회의 돌봄과 교육 과제
- 학습도시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서로 무관하게 진행중

나. 지역 자원의 분리, 학교 중심의 교육정책 사업의 한계 극복

- 학교 발전과 지역 수동적 대응, ‘학교를 위해’ 자원 동원을 했지만 학교에 새로운 짐이 되는 모순
- 청소년/ 교육/ 돌봄/ 평생교육 등 정책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정책의 한계

다. 21세기 초연결 시대에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가능성이 더욱 풍부해지는 지역사회에서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구조적으로 전환(양자대립적 → 협동적 구조)
- 지역의 교육자원을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는 교육네트워크의 구조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 자치적 공간, 지역은 지역자원을 교육적 재구성하는 지역교육계획 => 지역 교육력의 극대화
- 밑으로부터의 풀뿌리 주민교육자치의 형성



교육부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교육의 가능성
지역교육공동체 창조의 과제

감사합니다.

발제 1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 전환 및 과제

김웅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 전환 및 과제

김응수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1. 서론

출산률 저하는 인구절벽 시대 진입과 더불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소멸위험에 처한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3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절반(49.6%)수준으로 조사되었다(박진경, 2022).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은 지역 격차를 넘어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인구절벽을 넘어 소멸위험 시대에 직면하면서 농촌사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논의와 정책접근이 요구된다. 전형적인 도농지역인 완주군은 생활권이 도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청소년 인구 감소와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고령화로 인한 농촌문제를 넘어 농촌소멸, 농촌붕괴가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문제해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인 대응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인구감소의 핵심 고리인 아동·청소년, 청년 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산업과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과 지역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자리, 교육, 복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인구이동이 증가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의 사회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측면의 불균형과 더불어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을 통해서 사회변화에 영향을 준다. 2019년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감염증-19(COVID-19)은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 현상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위험은 우리사회의 청소년에게 더 큰 심리적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비대면사회로 인해서 대인관계의 일상적인 만남이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었지만 이전까지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등교조차 할 수 없고, 집에서 나홀로 있는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보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일상생활 수행조차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이탈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하고, 실제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복지적 서비스와 지원체계는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인구감소 문제와 함께 더불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인구소멸 위기 지역의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식 전환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물론 인구소멸위험 시대에 완주군은 청소년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등 청소년층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낮아지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가족의 참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자생 가능한 청소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력적인 요인이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본 발제자는 관청이나 민간기관의 주도가 아닌 청소년참여 주도로 민·관·학의 네트워크 체계와 동력을 형성하고 있는 완주군의 청소년정책 추진 전환 방식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 전환 요구

1)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와 위험요인 증가

우리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 및 사회환경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에게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가장 먼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가 심해지면서 청소년 인구와 전체인구 중 청소년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층과 고령인구가 높으며, 청년인구와 가임 여성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율은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입전출 인구가 전입자 59,978명, 전출자 73,751명으로 13,773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20-39세 청년의 전출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와 함께 완주군은 20대와 30대의 인구유출률(2020년~2023년 추이)을 예측할 때에 -1.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영 외, 2019). 또한, 완주군의 총 인구 91,142(2021년 기준)중 청소년 인구는 13,552명(14.8%)인데, 2015년(17.8%)를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는 지역사회의 미래성장 동력과 경쟁력 약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청소년의 미래 부담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의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변화와 가족 환경의 영향력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시장 경제 시스템의 작동,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해체 등은 사회적 양극화 심화, 저성장, 4차 산업 혁명 등 사회, 경제, 기술적 환경 측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이주연 외, 2020).

셋째는 가족 내 청소년에 대한 돌봄체계와 위기상황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청소년을 둘러싼 생활환경의 변화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규모의 감소와 세대구성의 단순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가정 내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보호 시간의 감소로 인해 위기 청소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족형태의 다변화는 가정해체로 인한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청소년을 둘러싼 가족정책의 돌봄체계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확대와 비대면 상황과 청소년의 주변 생활환경의 급변화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시된 비대면 수업은 청소년의 보호 및 발달의 중요한 지지체계인 학교와의 상호작용이 미흡해지게 되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 환경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서 상호작용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청소년은 가정 내 머물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증가, 게임몰입 등으로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전염병 위기 속에서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좁은 생활 공간 내에서 가족의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이 증가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 증가될 수 있다. 독일 내 가정폭력은 아동·청소년, 여성이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Der Tagesspiegel, 2020). 일본의 경우 코로나 영향은 경제사정 악화와 더불어 자살과 가정폭력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자살률이 1년새 83%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이 증가되어 아동·청소년과 여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서울신문, 2020).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 19사태는 비대면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가 증가되어 아동·청소년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돌봄체계의 공백과 부족은 가정내 갈등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실업,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의 진행은 아동·청소년의 일탈에 가속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뉴스1, 2020). 반면에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사회는 미래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디지털전환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어 가상 플랫폼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복지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지역사회 내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

UN 아동·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그 자신과 사회환경의 변화와 반응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조약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최선의 이익을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많은 관심과 개입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공 정책, 민간 복지서비스, 행정당국, 법, 입법기관, 정책부처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단순한 규제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발달의 권리와 나아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의 주체로서 강조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지역 간 청소년 지원 및 인프라의 격차 발생, 경쟁적인 입시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심화, 놀이·여가 등의 부족, 청소년의 사회·정책적 참여 부족 등으로 청소년권리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많이 있다. 더욱이 코로나 19사태 이후 청소년은 가족 구성원의 갈등, 일탈과 가출, '코로나 블루'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돌봄과 복지지원체계의 안전망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하여 보완해야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단계 해소와 대면 가능 시점을 직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지원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보호 체계는 촘촘하게 구축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청소년정책의 수립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청소년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지역사회 청소년의 지형과 분포 그리고 정책수혜자인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한 논의가 반영된 연구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이 확보된 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결국 이는 청소년정책 기본방향과 함께 완주군 지역 정책적 환경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환경적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중장기적 청소년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논의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결국 정책 수립은 정책 이용자인 지역사회내 청소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청소년참여를 토대로 민관학의 협력적인 네트워크 체계 구축과 안전망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청소년 친화 생태계가 일구어질 수 있다.

3.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패러다임

1) 지속 가능한 청소년 친화 생태계 조성

완주군은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조성을 목표로 모두가 노리는 미래 행복 도시를 위해 주민우선, 현장중심, 혁신행정을 민선 8기 군정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군정비전의 핵심은 역시나 사람을 중심으로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5대 중점과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도농 동반성장, 활력 넘치는 청년완주, 디지털 교육 및 문화관광도시, 청정환경을 위한 배려하는 복지, 주민참여 확대를 민주적 지방자치로 이루어졌다. 완주군의 자족도시 조성의 핵심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실현의 중심에 사람이 우선시 되어 왔다. 완주군의 정책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일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행복한 으뜸 도시로 소문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분야에 대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에 주목할 수 있는데, 전국 시군단위 최초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인증 받았으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단순히 지방정부 최초 인증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의 필요, 의견, 목소리, 활동을 토대로 도시의 정책에 참여와 반응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굳은 의지의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13개 읍면을 뛰어다닌 결과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중심으로 완주군 내의 다양한 정책의 초점을 대상주체가 되는 아동·청소년에게 두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의 사업은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시스템에서 반영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아동·청소년 권리를 지역사회의 공공 정책,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안적 계획 수립 및 실행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중점사업은 아동·청소년과 그들을 사랑하는 완주 군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발굴된 정책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 의견, 활동을 통해서 완주군의 정책이 추진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반영될 때 아동·청소년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시작되었다.

2) “Inklusion” 청소년정책이 최우선

성인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급하게 형성된 청소년 정책들은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청소년참여가 배제되어 임시방편의 이벤트 행사로 끝나게 된다. 최근 독일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Inklusion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국가정책, 사회 공간 및 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지 논의하고 있다. Inklusion은 단지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이 배려되고 있고, 사업 과정 안에서 정책적 자문과 모니터링 수준을 벗어나 주체적인 참여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완주군은 청소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청소년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도시정책과 사회공동체 속에서 청소년을 고려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의회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사회적·정치적인 참여를 통해 정책반영의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청소년은 자신들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슈화하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으며,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자신들의 요구를 대변·관철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지역사회 내 정책결정은 청소년들의 권리와 관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회를 통해 정책 결정하도록 하였다.

완주군의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참여확대와 더불어 주도적인 청소년친화생태계 조성을 실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보호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권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군정에 참여하여 정책제안 및 발의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2016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하여 군정질문, 자유 발언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에 대한 예산편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는 직접선거방식을 통한 대표성 강화하였다. 어린이·청소년의원 구성 시 전북 최초로 의원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인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여 청소년의원을 선발하였다. 둘째로 지역별 참여 균등화하였다. 청소년의회 구성시 지역별 투표구를 선정하여 지역별 균등화를 꾀하였으며, 소수계층 청소년이 일정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기관 협력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문제의식, 해결방법 조사, 대안제시, 본회의 상정 등을 통해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토론·합의를 통해 정책으로 제시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은 청소년이 정책결정의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며, 현장에서 신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완주군의 청소년참여예산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참여예산 2억원 배정하였다. 청소년참여 예산은 모든 청소년이 제안한 사업을 매년 발표·심사함으로써 청소년참여권 확대 및 청소년정책 논의 가속화 한다.

3) 민·관·학이 함께 지탱해주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청소년정책의 접근성, 공공영역 한계의 극복은 지역사회 내 민·관·학 협력체계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강력

한 연대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한 돌봄체계를 형성할 때에 보완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정책 추진은 청소년 참여가 주도하는 정책추진과 더불어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작동할 때에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완주군의 청소년정책 추진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 동력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네트워크인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청소년친화도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활동가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위원회는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총괄 지원·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청소년의 권리와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흐르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4) 아동·청소년의 대변인 아동청소년 ombudsman 제도 운영

완주군은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청소년 인구 감소율이 보이지만, 청소년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현하여 청소년이 인근 대도시로의 유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완주군에 있는 청소년 기관들이 보다 지역의 특성과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권리 침해사안 발생 시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권리 대응체계인 아동·청소년ombudsma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ombudsman 제도는 청소년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 수행한다. 또한, 아동·청소년ombudsman은 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행정절차에 청소년의 목소리와 경험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동·청소년ombudsman 사무소가 부처별·기능별로 분절적으로 수행 중인 청소년 정책의 통합·조정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ombudsman 사무소는 정부, 비정부기구, 교육 현장, 법원, 행정당국과 입법기관 등에 의해서 실시되는 청소년 관련 모든 활동에 있어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법, 정책, 제도, 서비스가 청소년의 권리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구축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김용수 외, 2022).

4.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 향후 과제

본 발제는 인구절벽 시대 진입을 넘어 소멸위험 시대에 직면한 농촌사회에 지역중심의 청소년 청소년정책의 추진 방식 전환을 논의하였다. 완주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참여에 의해서 제안·기획되어야 하며,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와 자원을 확보하고 연계하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진된 정책은 청소년과 민·관·학 협력체계와 함께 평가 및 환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고령화 농촌문제를 넘어 농촌소멸, 농촌 붕괴가 되는 현실을 앞두고 청소년정책의 전환이 대안이 될 수 있을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구축과 강력한 연대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면, 더 나아가 청소년 친화적인 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성된다면 지역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과 관점은 달라질 것이다.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1) 지역중심의 특성을 반영한 “바텀-업”중장기 청소년정책 전략수립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추진 프로세스는 중앙정부의 청소년정책별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주면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을 시행하는 초창기에는 지방마다 정책과 예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방에 내려주면 지방자치단체가 동시다발적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이러한 탑-다운 방식은 정책의 추진력이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침에 따라 그대로 추진하면 되니 실행력은 높았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정책 계획수립 또는 과정의 숙고는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으나, 니즈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른 다양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과 그의 가족이 교육과 일자리문제 등으로 인해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2)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현재 완주군의 청소년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이용시설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로 볼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은 수련시설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을 방문하거나 위기 청소년 대상으로만 사업이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한 예시로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나 청소년참여기구 등 청소년의 모집이 어려우며, 한 청소년이 한 수련시설에서 중복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측해 볼 때,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는 줄어들 경향이 높고, 프로그램 수나 활동의 중복,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수련시설마다 특색사업은 보이지 않고, 시설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청소년의 흥미를 더 이상 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청소년의 니즈에 유기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현장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방과 후 개인교습의 선호, 청소년시설의 부정적인 인식 등을 유추할 수 있다.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청소년시설에만 한정되어 있는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시설의 경계를 허무는 정책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접근성과 니즈에 기반하여 마을회관, 학교, 문화센터, 청년공간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여 현장에서 직접 진로체험이나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해야 한다.

3) 청소년 정책 추진 전담부서의 권한강화

청소년정책은 다양한 부서, 여러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년 정책을 조정·평가하는 기능이 없거나 지속적인 사업과 예산의 확대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지역에서는 청소년인구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기존에 추진하였던 사업과 예산은 계속 확장되거나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비효율성, 정책의 중복성, 부서간·기관간 비협력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경직성은 매년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는 정책의 조정과 평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부서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영향평가를 통해 측정하고, 역할이 중복되거나 효과성 평가에서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청소년정책 조정위원회가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인력도 필요하다. 인력은 청소년정책 특성상 1~2년마다 순환되는 공무원을 배치하기 보다는 공무원 전문관으로 임명하여 최소 3년 이상 업무의 지속성을 높이거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

문성을 높여야 한다.

4) 청소년성장지원을 위한 자원 네트워킹 강화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부분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청소년 성장을 지원할 지역사회 자원이 대도시보다 부족하다. 자원의 불균형을 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하거나, 교육수준을 위해 대도시로 학생을 보내는 정책은 타 도시와 경쟁을 하지는 것이다. 경쟁 대신 완주 청소년에게는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 스펙이 경쟁이 아닌 유일한 조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과 학부모가 교육을 외부 대도시가 아닌 완주의 교육을 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 완주는 대도시에 비해 청소년자원은 부족하지만, 지역사회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이러한 자원 네트워크 체계 내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지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5) 지자체 장의 관심도 및 추진위원회의 정책 심의·의결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정책은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단체장의 공약이나 관심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투입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청소년정책에 관심이 부족하다면, 한 가지 대안으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기능이 실제적으로 논의과정이나 숙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형성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거주지역이 장소가 아닌 살고 있는 사람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사회는 그 곳에서 더불어 살고 함께 느끼고 향유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의해 의미 되어 진 공간이다. 청소년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활동에 참여하며 지속적인 상호 교류와 실천과정의 공유, 다양한 구성원과 연대를 형성하며 정과 추억을 만들게 된다. 결국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관계형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서 형성할 수 있다. 지역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지역공동체가 지역자원과 지역사회문제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면서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지역사회내 의미있는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온 마을이 연결되어 청소년이 성장발달 할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동영·이중섭·송용호. 2019. 전라북도 인구유입활성화(제2고향만들기)정책연구. 전북연구원.
김웅수 외. 2022. 아동옴부즈퍼슨 운영모델 수립 및 운영 매뉴얼 개발 연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완주군.
박진경. 2022.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와 자생적 대응전략. 지역산업과 고용, 3: 35-49.
이주영·이동기·최지훈. 2020. 전라북도 청소년정책 환경진단 및 발전방향 연구. 전북연구원.
뉴스1. 2020. 아이들이 위험하다...코로나 실업,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2020. 9. 21. 보도자료. <https://www.>

news1.kr/articles/?4052550에서 2022. 9. 20. 재인출

서울신문. 2020. 스스로 목숨 끊는 여성, 1년새 83%증가...가정폭력 증가 주요 원인. 2020. 11. 11. 보도자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500102&wlog_tag3=naver에서 2022. 9. 20. 재인출.

Der Tagesspiegel. 2020. Haeusliche Gewalt ist kein Schicksal: sondern ein Problem, das alle angeht. 2020. 4. 12. 보도자료. <https://www.tagesspiegel.de/politik/corona-und-die-ausgehbeschraenkungen-haeusliche-gewalt-ist-kein-schicksal-sondern-ein-problem-das-alle-angeht/25718698.html>에서 2022. 9. 20. 재인출.

발제 2

완주군 지역공동체 기반
청소년활동 협력사례 및 발전방향

장종택 교장
(고산고등학교)

대안학교 고산고와 마을·지역 연계 교육과정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

장종택 교장 (고산고등학교)

1. 교육전환

-근대교육체제로서의 학교!

-산업화 시대, 중진국 전략 일환으로의 교육

-경쟁과 입시몰입교육!

-공부는 시험공부로 축소되고 학생은 자율적인 배움의 존재라기 보단 수동적인 존재로 교사는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전지자로 존재해야 했고 학부모는 교육에서 소비자로, 민원인으로 학교운영은 지시와 통제위주 일방적 의사소통으로 존재 해옴.

-줄 세우기를 함으로써 경쟁을 내면화하고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채워질 수 없는)하는 인정 노예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 청소년 시기는 평생을 살아갈 내면 풍경의 밑그림을 그리는 결정적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전전두엽의 발달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기억과 충동을 관리 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지식을 기반 하되 실제 삶 속에서, 실천 속에서 만이 길러지는 소위 삶을 위한“역량”들인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배움이 삶으로 전환된다.

-미래교육도 청소년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을 지나치고 다른 논의를 하는 것은 노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지식기반 역량교육으로의 전환!

2. 대안교육

-87년 이후 학교는 전교조 운동으로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 함.

-방과 후 학교, 계절학교 등의 풀뿌리 대안교육이 90년 초중반에 생겨남.

-90년대에 들어서 그전과는 다르게 소위 범생이 들이 학교를 거부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교붕괴에 직면 하게 됨.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답이 95년 5.31 교육개혁 96년 중도탈락자 예방대책 98년 특성화학교 소위 인가대안학교 설립에 이르게 됨.

-근대 체제로써 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아니라 땀질식으로 가장 모순이 첨예하게 증첩돼 있는 고등학교에 6곳의 사립 특성화 대안학교 설립(산청 간디고, 청원 양업고, 영광 영산성지고, 담양 한빛고, 경주 화랑고, 합천 원경고).

-고등학교 중심의 인가 대안학교의 흐름과는 다르게 2001년 산 어린이학교, 광명법씨학교, 실상사 작은 학교 등의

비인가 대안학교운동이 일어남.

- 한국 교육사에서 학교전환을 위한 급진적인 운동이 비인가 대안교육운동 임.
- 비인가 대안교육은 “民教育”임.
- 학습당사자들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운동임.
- 학교를 버려서 학교를 세움.

3. 대안교육의 성과

- 공부와 학습에 대한 재규정.
- 공부는 삶을 위한 공부로.
- 공부는 연결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득의 과정으로 평생 익어 가는 것.
- 공감과 연대, 환대의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이 학습.
- 지식은 시험의 도구에서 사유의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재탄생.
- 학교의 결과 공부의 결과 중 하나가 입시이고 학교의, 공부의 목표는 개별학생의 개화를 위해서 勿忘 勿助長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의 눈부신 성장을 통해서 확인.
- 예측 불가능성의 시대 빠른 변화로 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힘든 시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연결과 환대의 공간으로.
- 초 연결 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키우는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훈련.
- 학생은 배움을 스스로 조직하는 주체적 존재로.
- 교사는 지식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자를 넘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촉진 하는 존재로.
- 학교의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의 역할과 관계의 재정립.
- 입시 몰입교육에서 간과 되어진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찾아 준 것.
- 適期(적기) 교육 실현.

4. 고산고등학교

- 1981년 완주군 고산면에 5학급 규모로 개교.
- 2018년 3월1일 한국교육역사에서 최초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안학교로 전환.
- 2010년 경남교육청이 태봉고등학교 설립 이후 공립 대안학교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 사립 에서 시작한 대안학교(특성화고등학교)를 왜 공립에서 하게 됐는가?
- 마을에서 대안학교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지.

5. 현 공립 대안학교 흐름

- 공립 대안학교는 두 가지 흐름으로 전개 되고 있음.
- 하나는 미래형 실험학교로 하나는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치유형 학교로.
- 초기 특성화 학교라는 틀에서 각종학교라는 틀로 변화.
- 일반학교를 전환하기에는 특성화학교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새로 개교하는 학교는 교육과정상 더욱 유

연한 각종학교로 개교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초기 인가 대안학교는 사립으로 초기 혁신성에서 지금은 다수의 학교가 일반학교와 별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오히려 공립에서 미래교육이란 담론으로 대안학교를 포월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기고 있음. -경기도 신나는 학교, 금곡고등학교, 고산고등학교

6. 대안교육, 미래교육으로써 고산고 과제

-고산고 교육 목표의 핵심을 찾고 구성하는 것.

-시험공부를 넘어선 교과로 각 교과교육을 풍부하게 하는 것.

-각종 체험을 교육적 경험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교과를 유기적으로 집중 하는 것.

-교사들 간의 협업 시스템 과 문화 정착-공부와 일을 통합.

-마을 교육 과정인 LTI(인턴십을 통한 배움)의 풍부화.

7.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성격

-인턴십을 통한 배움(Learning Through Internship)은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또한 학교를 마을의 중심에 두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성장해 가는 교육을 추구한다.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는 단계적으로 선행된 인턴십을 통한 배움Ⅰ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와 연계되며 인턴십을 통한 배움을 탐구하고 심화시키는 과목이다.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 교과는 첫째, 개개인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학교 밖 현장에 나가 다양한 삶의 가치를 경험하고 학습을 한 후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배움을 종합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현장 경험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고 비축된 에너지의 긍정적인 발현을 추구한다.

-둘째, 현장 체험과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통합학습으로의 연계를 모색하는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의 과정을 거쳐 보다 전문적이면서 확고한 진로와 연계하여 현장을 선택, 실시한다.

-셋째,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하에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결산이 총체적으로 집중돼 도록 운영하는 교과이다.

-넷째, 학교의 교육목표인 민주시민 교육을 지향하여 학생의 인권과 다양성, 개성이 존중받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의 삶이 반영된 유의미한 경험을 병행한다. 자율적, 협력적 참여적인 교육활동을 내실화하여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의 균형 있는 활동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8. 목표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 교과는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집중함으로써 배움을 종합한다. 맞춤형 학습을 통해 배워나가고 사대나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 원리를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미래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목표가 있다. 아울러 마을의 공동체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첫째, 인턴십을 통한 배움Ⅰ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를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총체적으로 탐구하고 종합한다.

- 둘째, 2년 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확고히 정립하는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 셋째, 관련 교과와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종합적으로 사고한다.
- 넷째, 경험과 실행으로 학생의 삶이 반영된 역량을 통합한다.
- 다섯째, 전인적인 성장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9. 교육 내용

1) 내용 체계

영역 내용	내용 요소	단원별 핵심내용
1부. 탐구와 심화	1. 탐구와 심화 2. 종합	‘인턴십을 통한 배움 I’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 II’를 토대로 확고한 진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심화하는 배움을 수립한다. 길잡이 교사, 멘토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2년 동안의 탐구한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한다. 학습 진행 과정에 필요한 물리적 요건들 살피며 학습 과정에 필요한 약속과 규칙 정하기를 통해 배움을 심화시킨다.
2부. 진로 정립	1. 전문화 2. 프로젝트 수행	보다 확고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화되고 심화된 현장을 선택한다. 집중적인 현장 체험활동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고 개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세운다. 학생과 멘토는 진로 설계를 심화시키는 활동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을 추구한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에 발생하는 능동적 대처 자세를 함양하며 적극적 배움의 자세와 책무성을 지닌다. 또한 공동의 규칙과 약속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3부. 연계와 통합	1. 연계 2. 통합	통합기행, 논문 등의 다양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통합하면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과제 수행에 대해 그 과정과 결과를 프리젠테이션으로 공유하며 결과는 다양한 활동 사진 등의 자료를 포함하여 성찰적 보고서로 작성한다. 스스로 활동에 대한 자기 평가를 수행하는데 멘토, 길잡이 교사와 평가기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4부 민주시민 역량	1. 성찰 2. 민주시민 역량	인턴십을 통한 배움으로 진로와 삶의 가치를 성찰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모색한다. 결과 보고서 내에 인권과 다양성, 개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세가 함축되도록 한다.

2) 성취기준

영역 내용	내용 요소	성취기준	성취수준
1부. 탐구와 심화	1. 탐구와 심화	‘인턴십을 통한 배움 I’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 II’를 토대로 확고한 진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심화하는 배움을 수립할 수 있다.	상 ‘인턴십을 통한 배움 I’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 II’를 토대로 확고한 진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심화하는 배움을 수립할 수 있다.
			중 진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심화하는 배움을 수립할 수 있다.
			하 배움을 수립할 수 있다.
	2. 종합	2년 동안의 탐구한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할 수 있다.	상 2년 동안의 탐구한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할 수 있다.
			중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할 수 있다.
			하 배움을 종합할 수 있다.
2부. 확고한 진로 정립	1. 전문화	보다 확고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화되고 심화된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상 보다 확고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화되고 심화된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중 전문화되고 심화된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하 현장을 선택할 수 있다.
	2. 프로젝트 수행	집중적인 현장 체험활동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고 개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상 집중적인 현장 체험활동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고 개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중 현장 체험 활동을 개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하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다.
3부. 연계와 통합	1. 연계	학습 경험을 통합기행, 논문 등의 다양한 교과와의 학습과 연계할 수 있다.	상 학습 경험을 통합기행, 논문 등의 다양한 교과와의 학습 내용과 연계할 수 있다.
			중 학습 경험을 다른 교과와의 학습 내용과 연계할 수 있다.
			하 다른 교과와의 학습 내용과 연계할 수 있다.
	2. 통합	현장 학습을 토대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	상 현장 학습을 토대로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
			중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를 통해 학습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
			하 학습 경험을 통합할 수 있다.
	3. 성찰	인턴십을 통한 배움으로 진로와 삶의 가치를 성찰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상 인턴십을 통한 배움으로 진로와 삶의 가치를 성찰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중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실천을 모색할 수 있다.
			하 진로와 삶의 가치를 성찰할 수 있다.
4부. 민주시민 역량	1. 민주시민 역량	인권과 다양성, 개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상 인권과 다양성, 개성을 존중하고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세를 갖출 수 있다.
			중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세를 갖출 수 있다.
			하 민주시민의 역량과 자세를 갖출 수 있다.

10. 교수학습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는 단계적인 인턴십을 통한 배움Ⅰ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에 이어서 연계되며 인턴십을 통한 배움을 탐구하고 심화시키는 과목이다. 따라서 확고한 진로를 선택하고 집중하여 보다 심화되고 전문화된 종합을 목표를 실천하는 수업을 중점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삶에 대한 성찰과 가치에 대한 진지한 고민으로 진로와 연계 할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한다.

가. 학생

학생은 '인턴십Ⅲ'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처음에는 길잡이 교사와 멘토의 도움을 받지만, 인턴십 활동을 운영하고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것은 학생이다.

- 1) '인턴십Ⅲ' 수업에서 중심적인 주체로 자기 이해를 높이고 관심사·흥미·적성·삶의 가치를 탐색하여 그에 맞는 활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
- 2) '인턴십을 통한 배움Ⅰ'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를 토대로 확고한 진로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심화하는 배움을 수립한다. 길잡이 교사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2년 동안의 탐구한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한다.
- 3) 길잡이교사, 멘토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2년 동안의 탐구한 경험을 토대로 3년 동안의 배움을 종합한다.
- 4) 보다 확고한 진로를 설계하고 전문화되고 심화된 현장을 선택한다. 집중적인 현장 체험활동으로 활동 목표를 정하고 개인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세운다.
- 5) 현장에서 체득한 '인턴십Ⅲ' 학습활동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한다.

나. 길잡이 교사

길잡이교사는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을 함께 설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인턴십Ⅲ' 활동은 진로를 확고히 하고 보다 심화된 전문적 현장을 연계한다.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하고 길잡이 교사는 안내자 역할을 하며 학생, 멘토와 긴밀하게 소통한다.

- 1) 학생이 개개인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및 생활 세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탐색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한다.
- 2) 학생의 수업 활동계획을 조율하고, 타 교과와의 연계를 세심히 조정하여 3개년의 과정이 통합되고 종합하도록 지원한다.
- 3) '인턴십Ⅲ' 활동 수단(컴퓨터, 도서, 현장 방문 등)을 조언하고 지도하며, 학생이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준다.
- 4) 학생의 관심에 대해 같이 토론, 계획하고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성장하도록 이끌어 조언한다.
- 5) 학생이 멘토를 찾으면 현장을 찾아 멘토와 학생과의 조화 여부, 현장 환경이 학습을 하는데 적절한지 등을 확인하고 멘토에게 체험활동 재료 등 적절한 물리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 6)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사후 활동을 확인한다.
- 7) '인턴십Ⅲ'과제 결과 발표 시간에 참여하여 독려하고 학생의 진로와 밀접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평가를 진솔하게 서술한다.

다. 멘토

멘토는 학생과 같은 관심 분야에 열정을 가진 전문가로 학교 밖 현실 세계(직업 현장)에서 학생의 배움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1) 학생에게 배움의 길을 안내하고 진로 탐색과 설정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연마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배움의 방법'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책임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실질적으로 학생을 위해 일거리나 배울 거리를 마련해주며, 일거리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을 통해 얻는 삶의 기쁨, 보람 등을 이야기한다.

3) 학생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적절한 학습계획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능동적 삶을 이끌어 내도록 격려한다.

4) 학생을 존중하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귀한 존재로 인식하고 소통한다.

5)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과제 결과 발표 시간에 참여하여 조언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가치,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생각을 촉진하도록 한다.

6) 함께 연대하는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현실 세계에 참여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11. 학습 평가

'인턴십을 통한 배움Ⅲ' 교과는 단계적으로 선행된 '인턴십을 통한 배움Ⅰ'과 '인턴십을 통한 배움Ⅱ'에 이어서 연계되며 인턴십을 통한 배움을 탐구하고 심화시킴을 기본으로 한다. 학교 밖 멘토를 만나 활동 목표를 정하고 능동적으로 현장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교과이다. 따라서 기획력, 실천력, 보고서, 발표력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를 구성한다.

1) 개인 프로젝트 학습을 수립하고 계획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서와 활동일지 작성을 평가한다.

2) 개인 프로젝트 학습 활동의 원래 취지와 목적이 잘 나타나 있고 배운 점과 느낀 점이 기록된 결과 보고서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 보고서 자료에 활동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여 성실하게 한 발표를 평가한다.

4) 길잡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인턴십에 임하는 자세, 참여의 정도, 태도 등을 수시 관찰한 성취도를 평가한다.

12. 향후 대안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고 연계해줄 전문 역량이 필요함

-현 고산에는 "고산향마을교육공동체"가 존재함

-그동안 초등 돌봄 중심의 자발적인 학부모 중심의 고산향이 있어 와서 활발하게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워 왔다.

-하지만 고등과정에서는 단순히 마을의 자원을 대상화해서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제 마을과 학교가 함께 후기 청소년 교육, 이 과정 에서 반드시 함께 연계되어야 할 청년과정을 아우르는 마을 교육을 준비 해야할 시점에 봉착 했다.

-이는 어쩌면 마을소멸을 막는 현실적인 "운동"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고산 고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LTI를 중심기로 잡고 심화, 확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미 혁신주무관이란 마을교육 지원 7급 고급인재가 고산에만 두 분이 삼우초, 고산고에 있다. 이에 더해서 지자

체와 교육청에서 일인씩 파견하고 이를 총괄 할 수 있는 조직 총괄과 실무 1인 정도를 확보하면 하나의 팀 이를 법인으로 하든..

-위 문제는 단순히 각자 하던 일에 여력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을 넘어 섰다. 누군가 시간과 공간을 투여해서 지속적으로 일을 추동할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지금에서 마을교육 조직은 위에서 밑으로가 아니라 여력과 역량이 가능한 곳에서 자발적으로 필요를 제기하면 지자체에서 호응하는 형식 이어야 한다.

-지금 고산이 그렇다!!

발제 3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과 학교 살리기 사례

임진희 센터장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전라북도농촌유학센터협의회장)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지역과 학교 살리기 사례

임진희 센터장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은 도시학생들이 1년이상 농촌으로 유학을 와서 시골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 아이들이 농촌의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활하는 습관을 기르고 농촌학교를 경험한다. 농촌의 작은 학교는 도시아이들이 전학을 오면서 활성화되고 농촌마을은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으로 활력이 넘치게 된다. 도시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 도시 학부모와 마을 간의 교류로 도시와 농촌이 주민들이 서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이런 농촌유학 중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대가족형 농촌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였다. 도시 아이들이 가족과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확대로 시골의 또 다른 가족이 생기는 것이다. 열린마을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예절과 인성교육을 받고 청소년 상담을 전공한 아빠 엄마가 상담과 생활지도를 한다. 그리고 교사들이 삼촌과 이모가 되고 유학 온 형과 누나 동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대가족이 된다. 푸른 산과 맑은 계곡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으며 아이들이 자연을 즐기는 것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농촌유학의 가치>

농촌유학은 교육적 가치로써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아이들은 사람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기계와 관계 맺는 것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다. 농촌유학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래집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어른과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공동체의 다양한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 관계 맺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갈등 해결 능력과 배려심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농촌유학의 교육적 장점이다. 열린마을농촌유학 표어중 '오늘이 행복해서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표어가 있다. 열린마을에 유학 온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양한 행복에 대한 공부를 하고 결론적으로 행복하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의 실천 방법으로 감사운동과 감사일기를 쓴다. 이 작은 일상의 감사가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아이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다. 농촌유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인성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적 가치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태적 가치로써 농촌유학은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한다. 열린마을 농촌유학 표어중 '자연을 사랑하는 아이 자연이 사랑하는 아이'라는 표어가 있다. 농촌유학의 생태교육을 통해 자연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고 우리가 자연을 지킬 때 자연도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 한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에서는 사계절 생태교육, 숲밧줄놀이, 숲캠핑 등 다양한 생태교육을 실시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

연과 뛰어놀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며 자연의 소중함도 매일 스스로 일깨워 간다. 이것이 농촌유학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농촌유학의 사회적 가치로써 핵가족시대에 대가족을 형성해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 한다. 핵가족에서는 알 수 없는 인성적, 정서적,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의 중요함도 깨닫게 된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아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유학을 마치고 원가족의 관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상담을 한다.

지역적 가치로 소멸해가는 시골에 농촌유학생이 오면서 활력을 주게 된다. 동상초는 전교생 23명중 유학생이 17명이고, 지역아이들이 6명으로 4개 학급이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멸될 수 있는 지역학교가 농촌유학을 통해 활성화 되고 지역에 남은 부모님이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도시아이들이 농촌유학 옴으로 도시아이들은 농촌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골아이들은 도시아이들을 통해 문화적 교류를 하여 도농교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농촌유학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돌봄 농촌유학>

교육의 시작은 건강한 돌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 한다. 건강한 돌봄은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감을 얻게 되고 치료효과까지 있다. 열린마을농촌유학은 규칙적인 생활도 아이들과 의논하여 아이들이 힘들지 않고 체 습화 되어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있도록 한다. 이때 교사는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

식생활도 돌봄의 중요한 부분인데 신선한 텃밭농작물을 아이들이 가꾸고 식자재로 사용하여 교육적 효과와 건강한 식생활에 좋은 영향을 주어 편식개선에도 효과적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규칙적으로 지역에서 장바서 신선한 식재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정해진 식단 이외에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칠판에 적어놓으면 메뉴에 추가하여 아이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게 한다. 배식은 급식처럼 하지 않고 집밥처럼 하여 집의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한다.

돌봄의 중요한 또 하나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기에는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자 존감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침 등교전 저녁 취침 전에 개별적으로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몸 대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고민이 있는 아이는 '5분데이트'라는 상담시간을 갖고 '포스트잇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나 선물을 주거나 개별적인 대화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서 전한다. 농촌유학은 공동체의식을 키워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개인에 대해 집중하는 돌봄이 부족할 수 있어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공동체에서 개인존중'이라는 일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려고 노력한다.

건강 돌봄은 6개월마다 치과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한방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정신과병원과 연계하여 치료와 상담을 실시한다. 센터장과 사무국장이 상담을 전공자로 일상에

서의 행동치료와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관찰된 내용을 기록하여 변화의 과정을 구체화 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DHD와 틱의 증상의 아이들이 치료되었다. 기본위생을 위해서 매일 샤워하고 아침과 저녁 의류를 매일 세탁하고 시설청결을 위해 1일 2회이상 청소와 코로나 방역소독을 실시 한다. 월 1회 세스코 방역과 공기청정관리를 받고 있다. 열린마을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프로그램 이전의 일상의 돌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지역홍보 농촌유학>

지역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년3회 전북 완주 지역탐방을 실시하고 있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위치한 동상면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은 돌산으로 되어 농작물은 대부분 자급자족을 위해 짓고 농작물 특산물은 많지 않지만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관광명소가 많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지역문화탐방을 동상면과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이들은 먼저 탐방한 곳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가족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농촌유학탐방 내용을 밴드와 블로그, 유튜브에 올려서 지역탐방지를 홍보하고 좋은 경험을 공유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우리 지역으로 가족여행을 많이 온다. 가족여행을 할 때 아이들은 미리 습득한 정보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높아지고, 가이드 역할을 통해 자존감도 높아져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좋은 예로 연석산 미술관은 외부에서 접하기 힘든 고지대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방문을 못하셨는데 아이들 전시회를 한후 부모님이 동상면을 오실 때 전시회를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다. 전북 완주 지역문화 탐방지를 블로그와 유튜브 그리고 밴드를 통해 홍보영상과 글을 올려 대외적으로 알리는 노력을하고 있다. 대승한지마을, 대아수목원, 힐조타운, 놀토피아, 물고기마을 등 지역문화공간은 아이들의 체험지 뿐만 아니라 도시 부모님들에게 힐링공간이 되었다.

또 도시 부모님과 지역 학부모님들이 동상초 학부모 모임을 적극 활용해 모임을 갖고 도시 부모님들이 지역특산물인 동상꽃감을 지역부모님을 통하여 선물용으로 구입을 하고 홍보도 해주신다.

동상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도시 부모님에게도 또 다른 고향이 되어 아이들이 농촌유학을 퇴소하고 성장한 후에도 함께 방문해주신다.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열린마을>

농촌유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학교와의 협력이다. 농촌유학을 운영하는데 학교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고 협력자이다

동상초는 생태힐링 교육, 소프트웨어, 스마트교육, 외국어 교육, 독서교육, 다양한 방과 후 교육, 현장 체험 교육 등 너무 훌륭한 교육커리큘럼과 부모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농촌 유학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동상초와 열린마을 농촌유학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센터장은 주1회 이상 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업무협력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나누고 담임선생님과 전화와 카톡으로 수시로 나눈다. 동상초는 농촌유학 담당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학교의 전달사항을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용품 지원과 방학동안 아이들 교구와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주셨다. 전라북도는 협력학교 지원비가 있는데 동상초는 항상 센터가 필요한 것부터 계획을 잡기를 원하시고 센터는 학교의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하기를 위하여 갈등이 전혀 없이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학교와 함께 한옥마을체험과 완주 탐방 그리고 홍보달력을 함께 제작하여 홍보에 적극 활용한다. 코로나 시기에 토요학교를 유학센터에서 운영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상호협력관계를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또 지역연석산미술관 작가와의 멘토교육 재료를 학교에서 지원해 주었다. 유학센터는 학교의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센터장이 학교운영위원을 맡아 학교일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였고 동상초에서 다른 학교로 전근가신 선생님들이 유학생들을 소개해주고 농촌유학을 홍보해 주어서 유학생입소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다.

열린마을은 밴드와 블로그에 동상초 생활을 홍보하고 있다. 유학을 보낸 부모님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시며 아이들은 동상초를 졸업하고 싶어한다. 열린마을과 동상초는 전국의 어떤 곳보다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동상초를 꿈의 학교라고 부른다.

또 ‘동상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동상초 교장선생님, 하나어린이집 원장님, 연석산미술관 관장님, 꿈나무체험관찰학습관 관장님과 유학센터 센터장이 함께 교육공동체를 구성하고 지역아이들과 유학생을 위한 2021년부터 교육협력을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서 연석산 미술관과는 2021년부터 4명의 전문화가님들에게 멘토링 교육을 받고 ‘애들아 미술과 노을자’라는 주제로 미술관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전시회를 하였다 전시회에는 지역주민과 도시 학부모님들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연석산 미술관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아이들은 미술에 관련된 꿈을 꾸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꿈나무자연관찰학습관에서는 4계절 동물 친화 교육과 생태교육을 실시했고 2022년에는 이러한 체험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UCC교육도 실시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재료비와 프로그램 비용의 협력을 동상초에서 해주어서 아이들은 더 많은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동상을 사랑하고 동상과 함께 성장하는 농촌유학>

완주 동상면은 17개 마을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한마을에 아이가 한명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친구집에 가거나 노는 것이 어려워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지역아이들의 문화의 집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농촌유학의 프로그램을 지역아이들과 함께 운영하고 방학 돌봄도 운영하고 부모님이 긴급한 상황으로 외출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농촌유학은 돌봄의 역할도 담당한다. 그래서 지역의 부모님들은 농촌유학을 신뢰하고 열린마을 농촌유학과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동상의 지역학부모님과 유학센터는 또 다른 대가족이 되었다. 열린마을이 꿈꾸는 대가족형 농촌유학이 유학센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학교 그리고 지역 학부모 그리고 지역아이들까지 모두가 가족이 되었다.

2022년 10월부터는 서울교육청과 전라북도교육청이 MOU를 맺고 서울의 학생들이 전라북도로 유학을 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발생으로 도시의 부모님은 농촌유학의 가치와 교육의 필요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관심이 전국 농촌유학 확대운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열린마을 아이들은 동상지역과 동상초를 사랑하고 ‘동상’을 아이들의 시골집으로 여기고 성인이 되어 또 찾아오는 그들의 ‘쉽의 장소’라고 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쉽’이 있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것인데 농촌유학은 어린시절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하는 소중한 곳이다.

이론

이근석 공동대표 (고산향교육공동체)
김주영 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유지숙 과장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최정선 관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이모. 삼촌들이 사는 지역

이근석 공동대표 (고산향교육공동체)

산업화와 핵가족으로 인해 농촌에서의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 시간은 너무 오래된 옛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단어가 무색해지고 지금은 인구소멸위기, 절벽이라는 단어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모든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자체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또한 녹록치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돌고 도는 인구유동만 있게 된 꼴입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폐교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완주 고산권역에서는 10년 전부터 들어오는(전학 등) 인구들이 다시 떠나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교육과정부터 고등교육 과정까지 학부모들이, 지역민들이 함께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초등교육과정에서 추구하던 교육방향이 고등교육과정까지 이어지게 되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그에 대한 시름을 놓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금의 고산권역은 귀농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고, 청년들은 머물며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역에 머물게 되니 자연 성인들의 삶도 그에 걸맞게 찾아가게 되고 지역의 자연스런 공동체를 여러 모양으로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어른들도 이전에는 자식이 학교에 다니면 관심이 있다가 성인이 되어 교육과정에 없으면 지역의 아이들에게 관심이 떨어져 가던 일도 이제는 지역의 모든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게 되고 잘 성장하도록 독려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도 지역의 어른들이 항상 자기들의 보호자 역할을 부모 이외에도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만나는 지역의 모든 어른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쉬운 일이 생기면 서슴없이 요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의 모든 어른이 '이모이거나 삼촌'이 된 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도 모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성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생각과 정책을 펼치지만, 당사자의 의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소홀하게 취급하기 마련입니다.

학교를 어떻게 꾸미고 어떤 교육과정을 하면 아이들에게 좋구 도움이 되고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정작 아이들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농촌 유학과정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1년동안 도시의 아이들과 어울려 텅글고 배우고 정을 나누지만, 이것이 잠깐이라는 점에서 농촌의 아이들 입장을 배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도시에서 오는 아이들은 농촌의 전원적이고 체험 거리가 많고, 대우(혜택?)를 받고 정서적으로 좋은 것을 결과로 꼽을 수 있지만, 농촌에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을 받고 좀 익숙해질 만하면 다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가는 시스템보다는 아예 귀농해서 장기적인 주거지로 삼게 만들어야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농촌의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이를 준비하는데 이제는 도시 아이들의 정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배움터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치고 훌륭한 교육과정으로는 빠져나가는 청소년을 잡을 수 없습니다.

살고 있는 청소년과 새로 유입하는 청소년이 잘 어우러지는 관계 형성과정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정책이 들어오는 청소년들에게, 귀농하는 층에 맞추다 보면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다른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소홀해 질 수 있습니다.

완주의 귀농정책과 청년쉐어하우스 정책은 다른 지자체에 본보기가 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는 것 또한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지역에서 배움의 길을 가고 사회로 나오는 새내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산고 교장 선생님의 고민을 지역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정책보다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살 수 있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야 인구소멸위기에서 벗어날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의 공동체가 살아야 학교도 살고,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사는 긴밀한 관계이라는 점에서 한 축으로 정책이 세우기보다는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협업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환대하는 지역 만들기

김주영 대표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C.Art)

1. 고산면의 사례

●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래’

- 마을시민을 키우는 환대와 성장의 공간 = 대안문화공간 + 학교밖학교 + 마을도서관 + 커뮤니티허브
- 2017년~ / 완주군에서 지역주민의 요청을 수용하여 유희공간(농협창고)를 청소년공간으로 전환
- 청소년(중학생) 모듬활동, 문화활동, 자치활동 등

● 지역기반진로탐색 ‘로잉프로젝트’

- 지역살이를 고민하는 이행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그램 / 넘나들며 배우기, 연결되어 일하기, 더불어 살아가기
- 2020~2021년 / 삼선배움과나눔재단 지원 / 지역의 성과와 경험을 다음 세대로 확장하는 실험
-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이행기 청(소)년 20여명 참여 / 탐방(거제, 금산 등), 독서, 토론, 사람책 등

● 완주청년마을 ‘다음타운’

-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선정
- 지역탐색, 창업지원, 문화교류, 자기다움, 네트워크 등 / 청(소)년의 지역탐색을 위한 거점공간 ‘로컬 베이스캠프’ 조성
- 특성화고 및 대안학교 재학생 대상 지역탐색캠프 진행 / ‘고사리탐험’, ‘별의별이주OO’ 등 도시청년 대상 지역탐색프로그램 진행중 (2022년~)

● 고산고등학교 ‘인턴십을통한배움’, ‘학교-마을교육과정전담TF’ 등

-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 LTI(Learning Through Internship) 진행
- 마을교육활동가-교사 월례모임 정례화 (2021년~)

2. 의미와 한계

- 마을공동체, 지역순환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지역살이의 가능성
- 고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과 청소년을 연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 기성세대 중심의 지역사회에서 문화, 교류, 참여, 성장의 기회 부족
- 주요 지역의제로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원과 인식 미흡
- 돌봄과 방과후교육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 청년의 지역 정주에 대한 부정적 인식

3. 제언

인구감소, 지방소멸은 지역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단기간에 정주 인구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배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정책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뿐이다.

인구소멸위기지역의 청소년정책 역시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왜 청소년이 지역에 남을 수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우선 필요하다. 청(소)년 세대를 지역 밖으로 몰아내는 ‘원심력’이 무엇인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직시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인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그들은 진심으로 환대받고 있다고 느낄까?

모두가 지역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로컬이 기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청년들이 도시를 떠나 지역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과 멋진 실험을 보여주고 있다. 소유 보다 경험이 중요한 세대, 나다운 삶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러나 지역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지역의 잠재력을 더 모른다고 한다. 아마도 도시만을 바라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은 아닐까? 지역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망해가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이 재미있어서, 지역살이는 힘하니까, 지역에 비전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남을 수 있도록.

인구소멸위기 지역 청소년정책 전환방안, 현장사례를 말한다.

- 행정을 중심으로 -

유지숙 과장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

오늘 토론에서 기조발표를 해주신 양병찬교수님의 <왜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이 중요한가?>와 김웅수 교수님의 추진방식 전환 및 과제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장종택 교장선생님과 임진희 센터장님의 지역 중심 청소년정책에서 아이들과 학교 그리고 지역살리기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의미있는 연구와 현장활동, 그리고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1. 발제를 들으며

발제문을 읽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웅수교수님이 말씀하신 지역에 근거한 지원체계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민관학 연계로 이끌어가는 청소년정책은 생각 만 해도 흐뭇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책 업무 담당자 전문관 임명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장종택 교장선생님의 인턴십을 통한 배움사례에서는 대안학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안학교는 부적응학생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멘토 그리고 혁신 주무관과 지역이 함께하며 학생 스스로 자기인생과 진로를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최상의 선택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산고 학생들은 참 운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임진희 센터장님의 농촌유학사례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서울에서까지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유학은 도시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농촌학교와 마을 활성화 그리고 인구유입에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의 그동안 지역 실천사례에서 교육적 가치, 생태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역적 가치를 자세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유학에 있어서 학교와의 협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임진희 센터장님은 비단 학교 뿐 아니라 지역 내 모든 기관들과 끈끈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도 기대되는 바가 큼니다.

위의 사례에서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기반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맥락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치’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청소년정책 추진에 있어 교육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과 지역사회 유관기관들이 연대협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구조가 구조적으로 만들어 진다면 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 간, 학

교와 지역사회간, 지역사회와 교육청간으로 파급되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협치’는 단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 청소년 정책 추진사례(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중심)

완주군은 이러한 고민들로부터 시작해 지난 2014년부터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교육통합지원센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행정 그리고 학부모와 행정 간 가교역할을 하는 국내 최초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사단법인 지역플러스연구소(이병재)에서 개소 이래 지금까지 위탁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으나 약 5억 5천정도(완주군위수탁+완주교육지원청)¹⁾입니다. 교육동아리 발굴 및 육성, 교육공동체 역량강화(동아리 순회 미팅 등),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교육통합²⁾프로그램 실행(개발 및 진로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매개자³⁾(학부모강사) 양성 및 배치(기본 및 심화교육)가 주요 사업입니다.

지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의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른바 커뮤니티비즈니스가 바로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초기부터 교육동아리 발굴과 공동체 역량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성과가 있었지만, 지역과 더불어 학부모가 성장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새롭게 시도한 ‘학교마을사업’이 가장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을 교육과정은 7년째 운영 중이며 참여학교는 45개 유·초·중·고입니다. 참여기관은 36개이며 130여명의 강사진이 25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마을교육과정이 남다른 것은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양기관(완주군과 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을 통해 만들어 내고 있는 과정이며, 지역사회 주민의 역량이 학교 교육에 지역의 삶과 기능을 수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총 4,600시간이며(코로나시기 6,000시간을 상회했음), 영역은 13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마을 현황

2022.9월 현재

	유초중고 (53개)	기관 (개)	강사 (명)	프로그램 (개)	시수 (시)
수	45	36	130	255	4,600
영역	13개 영역(공예, 마을체험, 문화예술, 제과제빵, 환경생태, 스포츠, 전래놀이, 진로, 역사문화, IT과학, 프로젝트 수업, 농업경제, 기타)				

학교마을 교육과정은 완주관내 45개 학교에서 교과연계 94개, 창의적 체험활동 59개, 자유학기 102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기관의 지원액을 평균 환산함.

2) 교육관련 기관 간 연계와 협력강화 및 통합 프로그램 개발

3) 학부모, 마을, 마을구성원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주도자 또는 리더

3. 앞으로의 과제

1) 다양한 주체가 주인공 되기

지난 8월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19회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의 참정권 증진’을 주제로 6월~7월 개최된 지역대회를 통해 선발된 전국 아동대표 110명이 모여 정책개선 결의문을 채택한 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결의문은 13개 조항으로 주로 아동 목소리 반영, 아동참여기구 홍보, 전용사이트 개설 등이 주를 이루었고 그중 앞으로 청소년정책 수립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내용이 있어 소개할까 하는데요.

- 교육청에 장애 이해 교육 자문위원회를 신설, 장애아동 의견 반영
- 학교 밖 아동 및 장애아동의 아동참여기구 참여 기회 제공

이 2가지 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완주군은 2016년부터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군정에 직접 참여해 정책제안 및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청소년 권리를 대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번 구성 때는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아동 등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2) 완주군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 조정

김웅수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달체계 패러다임 변화필요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접근성이 취약한 완주군은 사실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설치도 중요하겠지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든 기관, 단체 사업과 ‘통합, 융복합’하는 시도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모들이 자발적 협동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순가락 육아공동체,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농장 운영, 우석대 재활학 전공 청년들이 의기투합해 만든 이랑협동조합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단체가 유기적 협조 하에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중복과 누락을 막고 좀 더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 그리고 영역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내부자료, 2022

2022년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 포럼 현장 사례를 말하다.

최정선 관장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사례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즉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청소년 현장에서는 이 말이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지역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상호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활동 및 성장에는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즉 정해진 사업비와 정해진 틀 안에서 청소년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활동의 최종목표는 청소년들의 전인적인 성장이다.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활동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1, 2, 3세대 공감프로젝트**(마을로 찾아가는 양말목 안마봉 만들기, 더운 여름 삼계탕 함께 만들기, 함께 영화보기, 함께 떠나는 여행 등)을 통해 1세대에게는 2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3세대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공감하고, 2, 3세대에게는 MZ세대(1세대)의 감성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창구가 되었다. 이 창구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은 전인적인 건강한 성장을 진행 중이다.

또, **봉동자율방범대, 용진자율방범대, 둔산리자율방범대와 연계**하여, 방과후 청소년들이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저녁시간 차량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지역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안심귀가 봉사를, 지역 청소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안심귀가 서비스를 받고, 봉사단(인터랙트)을 꾸려, 지역사회 환경정화활동(만경강 플로깅 등~)에 앞장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봉동로타리클럽 봉사단(성인)과 인터랙트 봉사단(청소년)**이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즐거움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완주군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다.**

2. 청소년정책 반영(시행) 사례

여성정책에는 여성이 있고, 경제정책에는 경제전문가가 참여하듯이, **청소년정책에는 “청소년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이 직접 제언하고 만들어나가는 청소년정책이야말로 실현되었을 때, **실효성에 대한 효과가 매우 크다.**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언하고, 실행 되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 ① 완주군어린이청소년의회(2019년 제안 - 2021 시행/화장실 내부에 낮은 옷걸이 설치)
- ② 전라북도 청소년참여예산제 청소년복지환경 프로젝트(2021년 제안 - 2022년 시행/청소년

이용시설 위생용품 자판기 설치)

- ③ 전라북도 김제시(청소년드림카드시행/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6~18세 청소년/1인당 월 5만원/포인트카드충전방식/문화, 체육, 진로개발, 경제지원 등에 사용)
- ④ 전라북도 진안군(진안군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참여위원회 2021년 제안 - 2022년 시행 중 청소년드림카드시행/진안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4세~19세/중학생 1인당 월 3만원, 고등학생 1인당 월 5만원/포인트카드충전방식/문화, 체육, 진로개발, 경제지원 등에 사용)
- ⑤ 무주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참여위원회-버스 배차시간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제안-2020년 9월 부터 시행/중, 고등학생 누구나 500원 택시 이용-무주 시내나 외곽 지역이여도 청소년이면 누구나 500원으로 택시를 탈 수 있음.)
- ⑥ 순창군청소년수련관(청소년 운영·참여위원회-2020년 도서관 리모델링 제안-2021년 모니터링-2022년 현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
- ⑦ 남원시청소년수련관(청소년참여위원회-등곳길 버스 증차 및 수련관 내 풋살장 설립 제안-등곳길 버스 증차(2019년 시행)/풋살장 설립(2022년 현재 허가)
- ⑧ 익산 “다, 이로움” 청소년프로그램-활동기간 2021년 5월 ~ 10월/“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시행(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
- ★ 그 외에도 군산 청소년자치배움터 자문-청소년자치위원회-청소년버스요금정책 제안-지자체와 청소년자치위원회가 협의 중~

3. 청소년 인구소멸지역 활동 현장에서의 제언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젊은 인구의 감소,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인구절벽, 인구소멸 등에 대한 고민은 깊어져 간다. 인구가 유입되어야 청소년활동 및 기관들도 청소년들로 넘쳐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경제, 환경, 공동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살기 좋은 마을, 살기 좋은 교육정책, 살기 좋은 환경, 살기 좋은 공동체가 마련되어야 인구가 유입될 것이다. 청소년현장에서는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아닌 청소년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청소년들이 유입되고, 성과를 배로 증진 시킬 수 있는지 제언하고자 한다.

① 광의의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동의 역동성

완주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넓은 의미의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지리적 접근성과 생활권 접근의 용이점을 이용하여~ 이서 혁신도시부터~ 전주에 있는 교육(학교)기관, 청소년기관, 복지기관, 보건기관, 지역사회 협의체, 마을공동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완주군은 농산어촌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접한 기본지원형의 도시와 상호보완을 한다면, 서로에게 많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 전주의 청소년들과 완주의 청소년들이 모여, 광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프로그램 및 정책, 교육, 문화, 예술 등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한다. 각자 지역의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점은 회의와 교류를 통해 제언함으로써, 활동의 탄력을 가져온다. 이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기본은 완주 관내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 지역사회의 기관, 주민, 자원들과 상호작용하고 교환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관계, 신뢰, 자원, 기술, 지식 등을 서로 공유하고 지원하여, 궁극에는 청소년들의 유입을 늘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체를 청소년에게 돌려준다.

청소년기관의 주인은 청소년이다. 그러나 현실은 실무자들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동형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청소년참여예산제나, 정책제안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있지만, 소수의 청소년이다. 모든(누구나) 청소년들이 개인으로 또는 소그룹, 대그룹으로 모여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정책, 교육, 문화, 예술 등) 그 프로그램의 결과를 다시 기획으로 환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즐거움, 성취, 도전, 좌절, 협의, 협상, 토론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스스로 성장한다. 그 속에서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의 든든한 조력자와 옹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 이 과정의 소요되는 예산도 청소년들이 직접 사용하고, 집행한다. 청소년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청소년들만이 예산활용을 배우고 집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 당연히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 즐거운 경험과 스스로 만들어가는 활동과 정책, 실현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청소년 그룹이 형성되어 간다고 본다.

마무리하며, 청소년 활동가로서 우리는 청소년들과 매일 만난다. 매일 만나면서 “함께(공동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실현해 간다.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공동체, 네트워크)”가 현명하게 실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